

## 잃어 가는 말맛

이지누  
작가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지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경북 영천이었지만 당시 경상도 일대의 장정들이 그랬듯이 일본으로 끌려갔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험한 일을 하다가 오사카에 정착한 할아버지를 따라 할머니와 큰고모 그리고 큰아버지까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15년 터울이 진다. 까닭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어졌다가 다시 만난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곳에서 학교를 입학하여 다니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 때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대구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구 토박이인 어머니와 결혼하여 우리 4형제를 낳았다. 그러곤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경부 고속 도로가 만들어진 이듬해에 서울로 이사 온 것이 우리 가족의 간략한 역사이다.

그 때문에 나의 말은 영망이다. 앞에 말했듯 경북 내륙 지방인 영천 말을 하시던 할아버지에다가 분지여서 더욱 고약한 대구 말을 하는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일본 말을 배우고 할아버지로부터 영천 말을 배운 아버지가 사용하던 국적 불명의 말까지 다양한 말들이 어수선하게 내게 배어 있다. 서울로 전학을 오고 난 후에는 어땠을까. 지금도 억울한 것은 ‘경상도 보리문둥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국어 시간이면 늘 일어서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하늘’을 ‘하녕’로 발음하거나 ‘쌀’을 ‘살’로 발음하면 교실 유리창이 깨져

라 웃어 대던 그들의 웃음소리에 기가 죽곤 했었다.

그때는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 까닭을 알아보려 하기는커녕 놀림감으로 여겼던 시절이었다. 자기와 다른 것이 문제 일 뿐 왜 그런 것인지는 결코 인정해 주는 법이 없었다. 그 때문에 국어 시간이 정말 싫었다. 영어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영어 발음은 어땠을까. 영화 <친구>에서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라던 영어 선생 역할을 한 배우 김광규의 발음이 내가 기억하는 경상도 영어 선생님들의 정확한 발음이다. 그러니 그보다 더 거친 나의 발음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내성적이었던 어린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뎌 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택한 방법 중 하나가 국어와 영어를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발음의 불리함을 성적으로 메꿔 보려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성적은 쑥쑥 올라갔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또 문제가 생겼다. 당시는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우열반이 있었는데 국어와 영어는 우등반이었지만 수학은 열등반이었기 때문이다. 국어와 영어에 매달리느라 수학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이다. 대개 그런 학생은 잘 없었다. 1학년 전체에서 둘 밖에 없었으니 또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국어와 영어에 몰두하느라 수학을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심했던 것은 다 말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억울하기도 했다. 단지 대구에서 전학 온 촌뜨기가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고 투박한 사투리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사춘기는 영망이 되고 만 셈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자 갖은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숨통이 트였지만 이젠 나의 말을 비웃던 서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 나의 말이 우스꽝스럽게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구에 내려가거나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니 그기 어느 나라 말이고.”라는 편장을 들어야 했고 서울에서는 여전히 촌놈이 쓰는 어눌한 서울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게 언어의 이방인이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다.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둔 후 대학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작가의 꿈을 펼치기로 하고 1984년부터 암중모색이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가진 숙려의 시간들은 짧지 않았다. 시골집 외양간을 고쳐서 만든 문간방 두 개를 빌려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사진기와 펜을 함께 드는 것이었다. 1994년부터 사진기와 녹음기 그리고 펜을 들고 산마을과 강 마을, 바닷가 마을과 섬마을을 가리지 않고 골골 살샅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으니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활상은 사진으로 찍었다.

1994년 가을, 송이를 막 따고 난 후였으니 이맘때였다. 그때 만난 이는 횡계에서 대관령 마루를 지나 강릉 쪽으로 내려가다가 만나는 첫 마을인 어흘리에 살던 윤재옥 씨였다. 큰길에서 걸어서 가면 30분은 족히 걸어야 할 곳에 살던 그이는 당시 74세였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때부터 2007년 가을 무렵 까지 13년 동안 만났다. 그이의 고향은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이었으며 17세에 목상을 하던 남편에게 시집와서 출곧 살았다. 그이가 살던 집은 남편이 장가 든다고 시부모가 직접 근처의 소나무와 흙으로 새로 지은 집이었으며, 그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같은 집에서 한 차례도 옮기지 않고 살았다.

당연히 그이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었다. 그 때문일까. 그이는 스스로 자기를 가꾸고 꾸미려는 말은 아예 할 줄 몰랐다. 13여 년 동안 해마다 많을 때는 예닐곱 차례, 적을 때는 두어 차례씩 반드시 찾아가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 말하는 개인 생활사나 구술사와 같은 방식이었으며, 사진에서 말하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것이었다. 홍수가 나도 갔었고 폭설이 쏟아지면 자동차는 큰길에 두고 걸어서 갔었다. 산골이어서 겨울이 되면 먹지 못하는 두부나 과일 혹은 고등어 같은 생선을 사들고 찾아가면 아랫목을 내주며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없는 이야기들을 군불 땐 방에 가득 풀어놓곤 했었다.

그이가 살던 집은 일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대관령에 신작로를 내기 전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대관령을 넘던 산길과 붙어 있었다. 신작로를 낼 때 일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할아버지도 불려 나갔다고 했다. 일하러 갈 때는 일본 사람들이 트럭을 마을 가까이 세워 두고 태워 가지 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일이 끝나는 자리에서 힘겹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었다.

또 할머니 집에서 10미터 남짓 떨어진 앞집이 요즈음으로 치면 기사 식당과도 같은 마방집이었다. 대관령으로 올라갈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집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내려오던 사람들도 다리쉼을 하던 곳이었다. 강릉 쪽에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는 장꾼들도 몇 명씩 모일 때까지 그 집에서 기다렸다가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곤 했는데 산의 숲이 울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횡계 우시장으로 소를 몰고 올라가는 소 장수들이 이야기가 흥미롭다. 소 장수들은 결코 한 명씩 따로 다니는 법이 없어 마방에 여럿이 모이고 소가 스무 마리 넘게 모여야만 대관령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많게는 열 마리씩 소를 몰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방집에서 서로 를 기다리는 동안 소에게 입힐 옷을 짚으로 만들어 입혔기 때문이다. 짚으로 소 등에 대충 걸치는 옷을 만들어 소들을 굴비 엮듯이 입혀 놓으면 산으로 오르는 좁은 길에서도 긴 새끼줄 하나로 충분히 소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짚으로 만든 옷을 걸친 소들이 대관령 오솔길을 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장관이었지 싶다.

눈이 내리면 할머니 작은 키 정도는 충분히 파묻힐 만큼 호되게 내리는 통에 마방집이 또 복적였다고 했다. 쉽게 올라가지 못하니 눈을 밟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답설대가 강릉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할머니로부터 처음 들었다. 그들은 발에 설피 같은 것을 신고 대관령으로 오르내리는 길을 사람들이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내린 눈을 밟아서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제설 작업인 셈이지만 눈을 치울 여력은 되지 않았고

그저 눈을 다져서 밭이 푹푹 빠지지 않도록 해 놓는 정도였다고 한다. 눈이 덮이면 길의 흔적도 가뭇했을 텐데 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셈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민간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관공서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공무차 대관령을 오가야 하는데 눈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만든 것이라고 전한다.

그렇게 온갖 이야기를 풀어놓다가 밥때가 되면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밥을 안치고 부엌 바닥에는 화로를 꺼내서 석쇠를 걸고 소금 친 고등어를 올리면 타닥거리며 굽히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석쇠의 한쪽에는 뚝배기에 된장을 끓였으니 그것에다가 김치 한 보시기를 보태면 밥상의 전부였다. 방으로 밥상을 들이면 아들과 나는 둑근 양은 상에 밥을 올려놓고 먹었지만 할머니는 내가 그 집을 드나든 아래 단 한 차례도 밥상에 밥을 올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들을 ‘아들님’이라고 불렀고 어떻게 ‘아들님’하고 겸상을 하냐며 늘 밥상 곁에 앉아 방바닥에 놓고 드셨다.

그렇게 고지식한 옛날 분이시니 그가 하는 말 또한 제대로 된 강원도 말이었다. 말했듯 그이는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서 남쪽으로 56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대관령 아래 성산면 어흘리로 시집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강원도 산골에서 다시 산골로 온 것이다. 그러곤 진주에 사는 큰딸네 집에 채 일주일이 되지 않는 시간만 다녀왔을 뿐 일절 바깥출입을 하지 않은 독특한 인물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심한 차멀미 탓에 강릉 시내조차 다니지 못했으며, 장은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만물상 자동차에서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 때문에 그의 말은 올곧은 강원도 말이었다. 어성전과 어흘리의 말이 조금 다를 테지만 눈에 띄게 불거질 만큼 다른 것은 아니기에 같은 말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만나서 사진과 녹음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대략 100여 명이 넘는다. 한 차례만 만나고 그만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대개는 서너 차례 이상, 비교적 횟수가 많은 사람들은 수년 동안 만나곤 했었다. 한번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라는 곳엘 갔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2001년 무렵에 주민등록상 나이가 94세였지만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것도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서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논농사를 하고 있었다. 그이 또한 징용으로 끌려가지 않았었다. 작은리는 2001년 당시 하루에 버스가 아침, 저녁 두 차례만 다니던 곳이었다. 그렇게 산속 분지에 폭 파묻힌 마을이어서 일본 사람들의 손길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용 때와 달리 한국 전쟁 때는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 그이도 대관령 할머니처럼 고향 마을을 단 한 차례도 떠나지 않고 붙박이로 살았던 인물이다. 산에서 야나무를 캐면 한달음에 대구 약전시장으로 들고 나가서 파는 것과 성주 장날 군청 소재지에 나가는 것이 그이의 바깥 걸음 전부였다. 가야산 기슭의 성주군은 위로는 김천 아래는 고령, 오른쪽으로 대구, 왼쪽은 높은 덕유산에 막혀 있는 곳이다.

사실 신체 건강한 남자가 징용이나 군대를 피하고 타지로 경제 활동을 나 가지 않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타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음식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생활 습속과 함께 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으로 기존의 자아에 덧씌우는 또 하나의 자아인 셈이다. 그러므로 나처럼 대구 말도 아니고 서울말도 아닌 어정쩡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말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이윤기 선생과 2000년대 초반 우리 나름의 언어 지도를 만들자고 하며 의기투합했던 것도 그런 관심의 결과였다.

그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잡지나 신문에 원고를 써서 넘기면 편집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가 원고에 사용한 말이 사전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가진 녹음테이프에는 분명히 그 말이 남아 있지만 사전에 없다는 이유로 고쳐 달라는 식이었다. 난감한 일이었다. 고지식한 편집자와 다투다가 연재를 취소한 적도 있었으며, 특하면 시비를

거는 통에 피곤할 정도였다. 나는 글로 쓰는 문장보다 사람이 입으로 하는 입말에 더 치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번지르르하게 가꾸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내가 만난 이들은 대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은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은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 사람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모양이나 사물의 색과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들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말들은 그 사람의 느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고스란히 전하는 직관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배와 함께 손을 잡고 《디새집》이라는 계간지를 창간하여 편집인이 되었을 때 구비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었다. 그 까닭은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아름다운 말을 채록하여 보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말했듯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분방하고 표현이 다양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생소하고 다를 뿐인 것이다. 글머리에 말했지만 나는 나의 말이 서울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이 되어 버린 사춘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지방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나라에서 말마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같아져 버린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집집마다 다른데 김치의 맛도 공장 김치로 인하여 같아져 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들의 말도 지방마다 지니고 있던 맛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성껏 살펴봐야 할 때이다.